



# 시험인증산업과 포장업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제언

The Co-living and Development of Packaging Industry and testing Certification

지난 7월 8일 지식경제부 산하 6개 시험연구원이 3개 대형 시험인증기관으로 재탄생했다. 그동안 글로벌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적인 규모의 국내 기관을 대형화하여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기존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이중 간 통합을 거쳐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 의료기기, 바이오, 환경, 포장물류 등의 분야에서 해외의 다국적 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기존업무 뿐 아닌 신규분야 진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화합' 이라는 요소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신설 기관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4대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통합출범 후 인적자원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상승시켜 연구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최신 시험인증장비를 확충하여 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들과의 적극적 제휴를 통해 우리 연구원의 인지도를 상승시켜, 국내외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글로벌 기관으로 성장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고객, 협력사로부터 신뢰를 받음과 동시에 임직원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GWP(Great Work Place)를 만들어 내어 '신바람 나는 직장' 을 구현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우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포장업계를 비롯한 많은 회원사들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한국포장협회에 짧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오 태 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최근 포장분야에 있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중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내 포장업계도 뛰어난 품질 경쟁력과 동시에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험검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식품의 포장재는 포장재의 구성성분, 포장재 제조공정에서 첨가된 유기물 성분들과 외부에서 오염된 유해물질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대부분 분자량이 작아 제조과정 중의 미 반응물, 단량체와 올리고머 또는 반응부산물 등과 함께 식품성분과의 이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라 국민 보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또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은 식품위생법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작성·보급하고 있다. 현행 식품공전 제7.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은 1. 일반기준과 2.공통제조기준 3. 용도별 규격 4. 재질별 규격 5. 일반시험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준·규격은 수입품 및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들 기준·규격은 제·개정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이 전면 개정되어 많은 기준규격이 변경, 추가 및 삭제가 되었다. 이는 미국, 유럽 등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거나, 최신화된 시험법으로 변경하는 내용들이 주 골자이다. 이들 기준·규격을 꾸준히 제·개정하는 이유는 국가 간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규격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통상 문제에 있어 국민들에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국내 식품용기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할 경우 수입, 제조, 판매가 가능하므로, 동 규정의 강화 없이는 국내 유통 및 안전관리를 위해 강화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안전기준의 강화에 따라 추가검사비용이 발생하지만 위생·품질 확보 및 불신감 해소를 통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포장업체는 앞으로도 꾸준히 강화되어질 안전관리 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신뢰성 있는 검사기관에 제품의 안전을 검사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 및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포장재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하면서 포장재 안전성에 대한 법규가 새로 신설 및 변경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관련법규에 대해 관련업체가 잘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협회가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포장협회가 정부기관, 유관단체, 업체, 검사기관, 소비자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앞장서, 향후 포장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과 안전한 포장재의 생산으로 선진포장한국이 되는데 선두 역할을 하길 바라는 바이다. ☞

